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 그 위상과 전망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

양진오*

- I. 서론
- II. 서구적 근대의 주변과 국제 이주의 시작
- III. 서구적 근대의 기원과 세계적 하위주체의 탄생
- IV. 결말

【요약】

이 논문은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연구 대상 작품은 황석영의 신작 『바리데기』이다. 뛰어난 한국문학 작품을 세계문단의 중심언어로 번역해 세계독자들과 만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바리데기』는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에 합치되는 소설이다. 『바리데기』는 내용적 차원에서 일국의 논리를 극복하는 경계 확산의 노력과 동시에 세계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 지구적인 현안인 이주와 21세기의 갈등과 분열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바리데기』는 비록 한국어로 서술된 소설이지만 그 문학적 시야는 일국의 논리를 뛰어 넘는다.

* 대구대학교

서구적 근대의 주변인 북한에서 서구적 근대의 중심인 영국으로 경계를 넓히는 이 소설은 이주의 여성화와 성별 분업화, 하위주체들의 협력과 포용, 차이의 정치학 등의 문제를 서술하면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필자는 『바리데기』를 세계문학으로서의 한국문학의 위상과 전망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독해하고 있다.

I. 서론

한국문학은 어떻게 세계문학일 수 있을까? 한국문학은 어떻게 한국이라는 일국의 범주에 갇히지 않고 세계독자와 소통하면서 그 수많은 외국문학 중의 하나로 또한 동시에 세계문학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지구촌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세계화 시대에서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대단히 소중해 보인다. 한국문학이 전적으로 ‘한국’의 문학으로 자족하기보다는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필자는 본고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세계문학일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¹⁾

1) 괴테가 세계문학론을 주창한 이래, 세계문학의 위상과 전망을 논의하는 논문이 적지 않게 발표되어 왔지만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주의가 현실의 대세로 인식되는 지금이야말로 세계문학을 활발하게 탐구할 때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필자는 세계문학 개념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다카하시 오시오의 글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문학」(『아시아』, 2007 가을호)을 참고하고 있다. 다카하시 오시오는 이 글에서 “편견과 차별, 지배와 권력, 빈곤과 힘든 삶, 분쟁의 전쟁”이 횡행하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시야를 넓히면서 “새로운 공생적 질서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문학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적 현상으로 대두된 차별과 분단, 전쟁 등을 서구적 근대의 파행적 결과로 파악하는 필자는 서구적 근대를 비판,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전 지구적 차원의 공생과 연대의 질서를 창조하는 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자는 세계문학 개념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한국문학의 언어적 매체는 한국어이다. 국제적 예술문화 네트워크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자면 한국문학은 애초부터 세계문학적 가능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정이 아주 열악하지는 않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가 이 문제의 긴요성을 확인하는 바, 우수한 한국문학 작품의 번역은 이제 국가 과제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뛰어난 한국문학 작품을 세계문단의 중심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분명 의미 있는 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이 지속될 때 한국문학은 세계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그렇지만 번역이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확약하는 절대 조건은 아니다. 한국문학의 번역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국내외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본격문학의 번역은 그것대로 필요하지만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독자들을 감동시키는 내적 근거를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서 문학적 쟁점으로서 경계를 주목하기로 하자. 경계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는 한국문학의 논쟁적인 쟁점이다.²⁾ 지금 이 자리에서 문학적 쟁점으로서의 경계가 한국 문단에 부각되게 된

카하시 오시오의 논문 이외에 한기욱, 임홍배의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한기욱, 「지구화시대의 세계문학」, 『창작과비평』, 1999, 가을호.

임홍배, 「괴테의 세계문학론과 서구적 근대의 모험」, 『창작과비평』, 2000, 봄호.

- 2) 최근 계간지를 중심으로 경계의 문학적 현상과 의미를 고찰하는 특집이 게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일을 여는 작가』 2006년 겨울호의 특집은 “이주노동자와 한국문학”으로 여기에는 「경계를 넘고 이주하는 한국소설」(양진오), 「이주하는 여성들, 전략과 환멸의 서사」(김양선), 「얼룩진 육체의 거울, 뿌리 걷힌 삶」(최기숙), 「함께 있어도 외로움에 떠는 그들」(고인환), 「연민을 넘어선 윤리」(오창은) 등이 수록되어 있다. 『문학들』 2006년 가을호의 특집은 “경계, 경계에 선, 경계를 넘는 문학”으로 여기에는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를 위한, 디아스포라의 글쓰기」(손정수), 「(잃어버린) 삶의 구체성을 찾아서」(김수이), 「동요하는 텍스트들」(박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계라는 말 자체의 내포적 의미와 그 문학적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 쟁점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워낙 중층적인 까닭에 경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하게 나타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한국문학의 논쟁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 쟁점에 관한 논의는 상당 기간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민족 종족 간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시점에서 경계는 한국문학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화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문학적 쟁점으로서의 경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쟁점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확인되는 현상이지만 오늘날 한국문학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지리적 범주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다. 오늘날 한국문학은 가깝게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인근 아시아 국가를 멀게는 유럽과 러시아, 미국의 내부를 자신의 배경으로 수용하는 탈경계적 상상학을 창출하고 있다. 요컨대 한국문학은 자신의 상상 영토를 확산시키며 세계의 다양한 지리, 종족, 민족, 사회와 만난다는 말이다. 한국문학은 변주, 진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주와 진화의 구체적인 사례가 김인숙(「바다와 나비」) 김윤영(「타잔」) 전성태(「국경을 넘는 일」 「늑대」) 박범신(『나마스테』) 방현석(「존재의 형식」 「랩스터를 먹는 시간」) 오수연(「문」 「길」) 유재현(『시하늬빌 스토리』) 등의 작품이다. 이들의 작품은 국민과 민족으로 연표화되는 근대의 경계를 탈피하면서 그 동안 한국문학이 배제하거나 간과한 상상의 영토와 접속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유독 돋보이는 현상은 아시아 지역과의 다층적인 접속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아시아는 한국문학이 재발견한

상상의 영토로 그 성격이 정의될 수 있을 정도로 최근의 한국문학은 아시아를 각별히 바라보고 있다. 이 흐름을 주도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아시아는 존재의 갱신, 민중적 연대, 국가주의 비판 등을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영토로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상상 영토로서의 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으로까지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확대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작품의 등장이다. 그 비근한 예가 황석영의 신작 『바리데기』이다. 내용적 차원에서 국민국가의 범주를 확장하는 경계 확산과 더불어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시하는 이 소설은³⁾ 스스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견지하는 바, 오늘날 한국소설은 일국의 논리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⁴⁾

이 글은 199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더 정확히 말해 2000년대의 한국문학이 자신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의 문제를 황석영의 신작 『바리데기』를 놓고 진행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번역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일조할 수 있지만 그 일조는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문학이 되고자하는 노력을 추구할 때 비로소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제 한국문학은 일국의 논리를 뛰어넘어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좀 더 치열하게 고

3) 본론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예정으로, 이 소설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와 이동의 문제를 제기한다.

4)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현상이 문학 생성적 차원의 경계 확산이다. 과거의 한국문학은 일국 차원에서 생성되는 문학으로 그 성격이 정의될 수 있다. 근대소설이 본래 네이션의 논리에 호응하며 형성된 문학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한국근대소설이 식민화와 분단이라는 상황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네이션의 논리에 지극히 민감한 문학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이러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최근의 한국문학은 일국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자기 생성의 근거를 발견하고 있는 바, 이 또한 한국문학이 세계독자들과 만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최근의 한국문학은 일국의 경계 내에서 생성되기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 그 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아시아 문학 계간지인 『아시아』의 발간이다.

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II. 서구적 근대의 주변과 국제 이주의 시작

이미 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리데기』는 일국의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확장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이주와 이동의 문제를 제기하는 황석영의 최근 작품이다.⁵⁾ 『무기의 그늘』과 『심청, 연꽃의 길』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우리 작가 중 황석영처럼 문학적 스케일이 방대한 작가가 그리 많지 않다. 그는 이 소설에서 북한, 중국, 영국을 배경으로 대륙과 지역을 횡단하는 이주 여성들의 탄생 과정과 그들이 체험하는 사회적 억압의 구조적 양상 나아가 통합되지 않는 21세기의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한다.⁶⁾

한국 소설이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단지 문화

5) 황석영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최근 관심사를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세계금융자본의 재편성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민족도 국가도 없다는 이른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족과 국가의 분단이라는 전 세기의 유산에 짓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세 개의 낱말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지요. 첫째가 <근대>라는 말이요 둘째가 참새가 떠 있는 상태의 <트랜짓>이고 셋째가 <난민>이라는 말입니다.”(「황석영이 황석영을 말한다」 『작가세계』 2004년 봄호) 황석영이 자신의 주요 화두로 밝힌 근대, 횡단, 난민의 문제는 『바리데기』에도 제시되고 있다.

6) 『바리데기』는 서사 내용, 공간의 이동 상황, 사건 진행 등을 감안할 때, 그 스케일이 한 권 분량을 상회한다. 이런 점에서 단권으로 상재된 『바리데기』는 그 소설적 밀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심진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서사규모 면에서 『심청』 못지않은 『바리데기』는 『심청』의 3분의 1도 안되는, 말 그대로 경장편으로 꾸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분량이 적은 탓인지 초반 바리의 북쪽 생활에 비해 중국과 영국에서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소략하다는 인상을 주고 또 탈북 이후 만난 인물들 또한 충분하게 성격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심진경, 「한국문학은 살아 있다: 소설가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호.

적, 지리적 차원의 경계를 확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독자들의 관심을 유인하는 전 지구적 현안을 소설의 스토리와 주제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세계 경제가 서구적 자본주의로 통합된 21세기를 배경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현안으로 대두된 이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데기』는 2000년대 한국문학의 탈경계적 흐름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주목받을 만하다. 『바리데기』는 한국어로 서술된 한국 작품이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 국제 이주, 탈북, 9·11 테러, 런던 테러 등 세계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전 지구적인 이슈와 사건을 수용하면서 세계문학으로 나아갈 내적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바리데기』의 세계문학적 가능성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본고는 『바리데기』의 서사 진행이 크게 북한과 중국의 비서구 아시아와 영국의 서구 유럽으로 이중화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논점을 서구적 근대의 주변과 국제 이주의 시작과 서구적 근대의 기원과 세계적 하위주체의 탄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바리데기’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구송된 황천 서사무가의 주인공이다. 출생 이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에 노출된 바리데기는 그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는 비범한 인물로 재탄생하면서 죽은 영혼을 구제하는 생명수를 구하는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다. 험난한 여로를 거치며 새로운 자기와 완전한 자아를 발견한 바리데기는 수난의 해결사로서 또한 고통의 치유사로서 민중들의 존경을 받는 한국형 오르페우스로 유명하다.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이 한국형 오르페우스인 바리데기 신화의 모티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재해석의 방식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⁷⁾ 신화의 바리가 황천을 횡단하

7) 이러한 고전의 여성 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 전적으로 『바리데기』의 고유한 특징은 아니다. 여기서 환기해야 할 작품이 황석영의 또 다른 작품 『심청, 연꽃의 길』이다. 『심청, 연꽃의 길』은 19세기 동아시아

는 초현실계의 이주 여성이라면 『바리데기』의 바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제 이주 여성으로 설정되고 있다. 『바리데기』의 바리도 신화의 바리데기처럼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소설의 바리가 마주하는 주변 환경은 냉혹하다. 작가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바리의 이야기를 동북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시작한다.

우리 식구들이 뽀뽀이 흠어지던 때에 나는 겨우 열두살이었다.

어려서는 청진에 살았다.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바지의 단독주택에 살았다. 봄이면 마을 빈터의 마른 잡초들 사이에서 한무리의 진달래들이 이 묠음 저 묠음 다투어 피어나 아침저녁 노을에 붉게 타오르고 드높은 동편 하늘가에 아직도 눈을 하얗게 엮은 관모산이 아랫도리를 안개 속에 감추고 떠 있었다.(7)

인용문의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인 바리로 고향이 북한 청진이다. 작가는 바리의 고향인 청진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는 바, 청진은 한무리의 진달래와 노을, 눈을 하얗게 엮은 관모산 등으로 비유된다. 그렇지만 이 소설은 ‘서정적인 청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서정적인 청진으로 시작한 『바리데기』는 북한의 내부 균열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소설에서 북한은 자족적으로 존속하는 국가가 아니라 외부로 ‘인민’들을 이출시키는 동북아시아의 이주 국가로 묘사되고 있다. 요컨대 『바리데기』의 북한은 중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수많은 이주자들을 배출하는 이주자들의 나라로 지정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서 바리의 운명은 예사롭지 않다. 『바리데기』는 서정적인 청진 이후의 장면부터 바리 가족의 해체와 중국으로 이주를 서술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의 북한이 재현된다.

아를 배경으로 한 여성의 동아시아 근대 횡단 체험을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북한을 어떻게 재현할까? 이 소설은 북한을 체제 결속이 강화된 인민들의 공화국이 아니라 “배급도 끊기고 노동도 나오지 않으면서 광부”들이 “일을 때려 치우고 식량을 구하러 나돌아다니기 시작”하는 시기의 북한, “굶주리고 피곤에 겨워”하는 인민과 “하늘을 향하여 누운 자세로 있는 남자 시체”가 시시때때로 발견되는 북한을 재현한다. 그리고 “밤마다 들판과 마을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헛것”들이 출몰하고 “기근이 휩쓸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한 북한을 이 소설은 재현한다. 요컨대 『바리데기』에서의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 질서와는 분리된 고립과 빈곤, 죽음의 국가로 재현된다.⁸⁾

이처럼 『바리데기』는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서사를 시작하는 소설이다. 왜 이 소설은 이러한 구도를 취하고 있을까? 북한은 서구적 근대의 주변이다. 이러한 서구적 근대의 주변은 세계 시장이 분배하는 풍요의 혜택을 수혜하지 못하는 바, 북한에서 서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세계화의 불균형적 구조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상상력에 기인한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새롭게 재편된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 시장 질서에 적응한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여전히 주체 노선을 견지하는 국가로 존속한다. 그렇지만 주체 노선이 북한 인민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이 세계사적 격변기에서 북한은 서구적 근대의 주변에 위치하는 국가로 고정화되고 있다.

그렇기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의 기근 현상은 미국과 서구 국가들이 형성한 세계 시장 질서에 배제된 서구적 근대의 주변 국가가 겪게 되는 불행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굶주림과

8) 이 재현의 방식이 독특하다. 작가는 바리의 북한 유랑을 통해 북한 내부의 균열을 초점화한다. 영혼의 눈을 지닌 바리는 유랑 과정에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상을 헤매는 유령들과 자주 조우한다. 작가는 북한 내부의 균열을 때때로 환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바, 북한은 그로테스크한 세계로 이미지화된다.

가난은 신자유주의적 시장 구도로 재편된 지구 질서에서 소외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바리의 굶주림과 가족 해체, 이주는 단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렇게 『바리데기』는 1990년대 중반의 북한, 즉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민들의 도강과 이주, 이산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시점의 북한을 재현하면서 바리의 탈북과 중국 이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서구중심적 세계문학의 논리를 극복하려는 작가의 시도로 보인다. 서구적 근대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곤경과 위기 현상을 서술하면서 서구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반성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작가는 북한의 기근과 아사 그리고 그에 뒤이은 바리의 중국 이주를 세계적 사건으로 서술한다. 황석영은 서구적 근대의 주변에서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와 사건을 제기하면서 세계문학의 새로운 지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소설은 한반도의 경계를 이탈해 또 다른 영토로 이동하는데, 북한의 접경 국가 중국이다. 무역 거래 손실 혐의로 바리의 외삼촌이 남한으로 탈출하게 되자 바리의 아버지는 보위부의 취조를 받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리의 가족들 중 일부는 부령으로 또 다른 일부는 중국으로 도강한다. 결국 절망적인 기근, 자연 재해, 관료주의의 횡포 등이 바리의 가족들을 영원히 헤어지게 만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리를 구원하지 않았다. 바리는 이 불안한 공화국에서 미래가 불안한 이주 여성으로 탄생하는 순간에 놓여 있다.

중국에서 바리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과는 달리 세계 시장에 편입된 중국은 바리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그녀를 또 다른 외부로 이주시킨다. 바리에게 중국은 포용과 배제의 모순적 기능이 작동하는 국가로 체험된다. 이 모순적 기능이 변별되는 계기는 자본주의적 욕망의 표출이다. 중국으로 이주한 바리가 처음부터

중국 대중들의 자본주의적 욕망에 포섭되지는 않는다. 이 대목을 자세히 보기로 하겠다.

오늘날 중국 대륙을 유랑하는 탈북자들의 궁핍한 처지를 환기시키는 바리는 중국으로 이주한 후 중국 사회의 주변부에 편입된다. 바리는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소룡 아저씨의 도움으로 인신매매되거나 중국 공안들에게 붙잡히지는 않지만 그녀가 배치된 영역은 안마방으로 표상화되는 중국 사회의 주변부이다. 바리는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⁹⁾로 중국 사회의 주변부로 유입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주변부에서 바리의 위기가 심화되지는 않는다. 이 안마방은 인종과 민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경계 충돌의 공간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주변부 하위주체들의 암묵적인 연대와 협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안마방의 안마사들은 바리를 적대적인 타자로 규정하지 않는다. 바리와 같은 탈북자들에게 중국 당국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지만 안마사들은 바리를 새로운 동료로 인정하고 포용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상 언니와의 인연으로 상 언니는 바리를 동료로 인정하며 감싼다. 상과 그녀의 남편 찌우는 바리에겐 안마 기술을 친절하게 가르쳐줌으로써 바리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바리와 상 그리고 찌우 사이에는 권력적인 위계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주변부 하위주체들의 협력이며 연민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하위주체로 재현되고 있다. 그렇지만 소설은 중국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바로 자본주의적 욕망이 표출되는 중국이다. 바

9) 하위주체는 “생산위주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중심을 차지하던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포괄하면서도 성, 인종,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람시가 주목한 이 개념의 젠더화를 중시한 이론가는 스피박(Gayatri Spivak)이다. 스피박은 여성 하위주체의 삶과 그 삶에 대해 말하기, 그러한 하위주체들의 문화적 재현을 중요하게 고찰한 이론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태혜숙의 저서를 참고하고 있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pp.116~118.

리는 이 자본주의적 욕망의 대상으로 포섭되면서 이주를 강요받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바리는 중국에서 배제되는 타자로 정의된다.¹⁰⁾

이러한 중국의 부정적인 면모와 이미지는 따렌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낙원에서 두 해를” 보낸 바리는 “열다섯살 되던 해에 상언니와 찌우 형부를 따라 따렌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따렌은 전지구적 차원의 이주가 본격화되는 중국 내부의 출발지로 소설에서 설정되고 있다. 따렌에 도착한 그녀들은 국제 이주를 준비해야만 했다. 따렌에서 그녀들은 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외국으로의 이주를 강요받는 경제적 약자로 규정된다. 찌우 형부가 차린 마사지숍이 동료의 배반으로 문을 닫게 되는 순간부터 바리와 상은 이주가 상징하는 영원한 불확실성의 삶을 강요받는다.

이 장면에서의 중국은 윤리와 신의가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사기와 기만이 작동하는 야만적인 사회로 표상화된다. 순간적으로 몰락한 찌우는 중국의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안하게 작동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 몰락 이후의 바리와 상은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피계약자 신분의 국제 이주 여성으로 뒤바뀌고 만다. 그녀들은 자발적 의지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욕망을 폭력적으로 드러내는 중개업자들의 처분에 따라 비밀리에 밀매된다. 그녀들의 이주는 인간의 이주가 아니라 상품의 이동으로 변질된다는 말이다. 바로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 국제 이주 중개업자들에 의해 강제되는 그녀들의 이주는 그녀들의 인격

10) 북한과는 달리 시장 경제를 수용한 거대 제국 중국은 북한처럼 그 내부가 붕괴되지는 않는다. 북한이 만성적인 기근과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붕괴 위기에 직면한 국가로 재현된다면 이 소설에서의 중국은 자본주의의 사물화 현상이 반복되는 국가로 묘사되기도 한다. 북한 인민들이 생계를 해결할 목적으로 북한 탈주를 감행한다면 중국 인민들은 자본주의의 화신이 되어 인간관계를 분절시킨다. 세계화 시대의 중국 대중들이 모두 상과 찌우 같지 않다는 것을 소설은 폭로한다.

과 몸을 구매 가능한 상품으로 변질시킨다. 밀항선의 사내는 이주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밥은 하루에 아침마다 한 끼를 준다. 물도 한 바깥쓰뿐이다. 각자 아껴가며 연명해야 할 거다. 영국까지는 한 달이 걸린다. 도착해서 마지막 열흘만 견디면 새로운 땅에서 맘껏 돈벌며 살 수 있다. 사면에 도착하기 직전에 행동요령을 가르쳐줄 것이다.(126)

이와 같은 밀항 장면은 국제 이주자들이 직면한 이주의 열악한 여건과 반인간적 정황을 표현한다. 노예선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 밀항선에서 이주 여성과 노동자들은 “뱀처럼 짐과 짐 사이에 비좁은 틈바구니에 파고들어 서 있어야 했고” “용변도 그 자리에 선 채로 보았고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얻어먹지 못했다.” 또한 “첫날 번호를 잘못 불렀다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여자는 컨테이너에서 나온 뒤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해” 죽게 되며 상 언니는 선원들에게 강간당한다. 밀항선의 이주자들 특히 이주 여성들은 인격과 몸의 자율성이 완전히 소거된 위기의 여성으로 전락된다. 이 폭력적인 밀항 장면은 국제 이주의 본질이 인간의 이동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상품의 이동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리킨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밀항선에서 바리가 저승을 횡단하는 바리공주의 이미지를 구현하면서 국제 이주 노동의 고통스런 역사를 압축한 장면을 환상적으로 대면한다는 점이다. 저승 영매인 할머니와 칠성이의 안내로 황천을 주유하는 바리는 “온통 푸른 단색의 화면”을 통해 이주 과정에서 죽은 영혼들을 목격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리는 “토마토와 양배추가 든 상자 속에 숨막혀 죽은 시체들”, “어두운 컨테이너 속에서 숨이 막혀 괴로워하는 사람들”, “선원들의 비좁은 방에 불려온 사람들”, “벗은 몸 위에 치마와 상의를 몽쳐 감싸안고 쪼그려앉아 입을 막고 울음을 참는 여자”, “낮은 천장 위에 형광등 하나 켜 있고 재봉틀 앞에 앉아 산

더미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이 출현하는 저승의 장면을 투시한다. 이주자들의 고통과 절망, 슬픔을 표상하는 이 장면은 이주의 시대인 21세기의 디스토아적인 현실을 되비추는 은유로 바리의 이주 역시 이러한 이주의 본질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소설은 이야기한다.

III. 서구적 근대의 기원과 세계적 하위주체의 탄생

『바리테기』는 중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장면과 사건을 설정하면서 문학적 스케일을 더 새롭게 확장한다. 현대는 이주의 시대(the age of migration)라는 명제를 환기하듯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횡단하는 바리의 여정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면서 문학적 배경을 서구로 이동한다. 그리고 이 소설은 바리의 영국 이주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계적 시야를 확보한다. 전 지구적 현안으로서의 이주의 본원적인 문제가 영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예각적으로 제시된다는 말이다. 중국으로의 이주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주의 탈인격적 상품화 문제, 이주자의 성적 역할의 배분 문제 등이 영국 이주 장면에서는 발견된다. 영국 이주 이후의 바리는 세계 전역에서 유입된 이주자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편견, 세계를 뒤흔든 9·11 테러와 런던 테러를 목격하거나 체험하면서 전 지구적인 사건과 현안들에 연루된 세계적 하위주체로 탄생한다. 이렇게 소설은 바리의 현존을 비서구 아시아에서 서구 유럽으로 이동시키면서 소설의 경계를 넓히고 주제적 차원의 의미를 갱신시킨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영국으로의 이주는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이주보다 복잡하게 진행되는 사건이다. 중국에서 영국으로의 이주는 제 3세계 하위주체들을 서구로 유입하는 신자유주

의적 경제 관계가 반영된 이주이며 성, 인종, 계급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차이의 정치학이 동반되는 이주인 까닭이다.¹¹⁾ 바리의 영국 이주가 내포하는 의미가 그만큼 중층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이며 이 중층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조건을 차이의 정치학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다. 영국에서의 바리는 인종적 계급적 성적으로 주류 백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인간으로 정의되고 있다. 영국으로 유입된 바리와 중국인들은 런던에서 성별로 매매되기 시작한다. 남자들이 매매된 이후에 “차이나타운 거리의 뒷골목으로” 옮겨진 바리와 중국인 여성들은 매춘을 강요받는다. 그녀들에게 영국은 노동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녀들에게 영국은 불확실한 자본주의적 삶이 전개되는 서구적 근대의 기원이었다.

언니와 나는 다음날 거기서 멀지 않은 차이나타운 거리의 뒷골목으로 옮겨갔다. 비좁은 층계를 올라가 복도 좌우로 방이 있던 집이었다. 방문이 열리면서 금발과 갈색머리의 덩치 큰 여자들이 내다보았다. 우리는 소파가 있는 거실에 안내되었는데 뚱뚱해서 연방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는 백인 아줌마가 들어와 뭐라고 얘기했다. 우리를 데려간 사내가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했다. 상 언니와 우리 배에 탔던 여자 하나와 나 세 사람은 머뭇거리다가 옷을 벗었다.(145)

“뚱뚱해서 연방 씩씩거리는 숨소리를 내는 백인 아줌마”의 나라인 영국에서 바리가 처음으로 한 일은 “우리를 데려간 사내”와 “백인 아줌마” 앞에서 몸을 사물화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의 백인 여성은 포주로 바리와 상 같은 동양 여성들의 몸을 식민화하는 제국주의자의 욕망을 거침없이 노출한다. 백인 여성의 시선에 포착

11) 서구에서 바리의 정체성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되는 바, 이러한 정의는 성적, 인종적, 민족적, 계급적 차이를 차별로 환원시키는 서구 권력의 근대적 인식의 산물이다. 필자는 이러한 차별적 권력 관계 현상을 차이의 정치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된 이 동양 여성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매춘업에 종사해야 하는 복종의 타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영국에서의 바리는 전 지구화 시대에 이주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억압과 차별을 경험한다. 바리의 이주는 자본주의 매춘 산업과 연관된 이주이며 이러한 이주는 여성 이주자의 성적 역할의 배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환기시킨다.

또한 이 장면은 영국 백인 여성과 바리 사이에는 차이의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이 장면에서 바리는 인종적 계급적 성적으로 열등하고 구속된 존재로 표상화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화는 비서구 여성으로서 바리가 여전히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의 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바리의 영국 이주는 바리의 지위를 하향화하는 차이의 정치학에 결박시키는 사건이라는 말이다.

다행히 나이 어린 바리는 사창가에 팔리지 않고 베트남인 루의 식당으로 팔린다. 루의 식당에서 바리는 영국의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인종화된 노동¹²⁾을 반복하는 고통 받는 이주 여성으로 그려진다. 그녀는 “잠도 하루에 네다섯 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깨어 있는 동안은 줄곧 서서” 일해야 했으며 “거의 열흘 이상을 그 집 식구들과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밥도 따로 주방 안쪽의 준비실에서” 먹어야 했고 “새벽 한 시가 넘어 모두들 문을 잠그고 퇴근한 다음에 홀과 주방을 청소하고” “준비실의 탁자에 비닐을 깔고 담요 한 장을 덮고” 잠을 자야 했다. 불법 이주자의 신분으로 영국의 경계 안으로 유입된 바리는 실질적으로는 그 경계 밖으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비서구의 타자로 배제된 바리는 늙은 제국 영국이 호출한 전 지구화 시대의 하인의 역할을 요구 받는다.

12) 백인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 영국에서 바리와 같은 동양 인종은 열악한 위치에서 가혹한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바리의 노동을 인종화된 노동으로 볼 수 있다. 인종화된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태혜숙의 저서를 참고하고 있다.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p.183.

그런데 전 지구화 시대의 하인은 바리만이 아니었다. 바리가 거주하게 된 램버스 구역의 연립주택에는 나이지리아인 흑인부부, 중국인 요리사, 필리핀인 청소부, 폴란드인 가족, 무슬림들이 생활하는데 이들이 세계도시 런던에 유입된 지구화 시대의 하인들이다. 대다수가 불법 이민자들인 이들은 영국 사회에 통합되지 않는 저층계급¹³⁾을 형성하며 영국의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육체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든 영국 밖으로 추방될 수 있으며 실제로 바리에게도 이러한 가능성은 상존한다.

램버스 구역의 연립주택의 풍경이나 엘리펀트 앤 캐슬 거리의 풍경이나 모두 세계화 시대의 풍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풍경은 중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서구의 풍경으로, 서구의 하부 구조에는 전 세계에서 유입된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두루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백인 주류들을 대신해 육체노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 업종에서 그들에게 봉사한다. 그리고 혼한 사례는 아니지만 그들은 영국 귀족들에게 봉사하는 하인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바리와 에밀리 부인과의 만남이 이를 예증한다.

대영제국 귀족의 후예인 50대 부인 에밀리는 영국의 이주자들과는 대척적인 위치에 놓인 인물이다. 그녀는 “켄징턴의 홀랜드 파크 부근에 있는 대저택”에 거주하는 부인으로서 하녀 대기실을 지닌 그녀의 저택은 과거 대영제국의 영화를 환기시킨다. 그런데 바리는 자신의 마사지 손님인 에밀리 부인에게서 영국의 은폐된 제국주의 역사의 장면들을 발견한다. 저승의 영역을 투시하는 능력을 지닌 바리는 에밀리 부인에게서 울룬디 마을의 출신인 흑인 유모 베키의 환영, “산의 바위벽마다 벌거숭이 흑인들이 연기

13) 저층계급은 기존의 노동자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계급 이하의 계급을 의미한다. 저층계급의 개념에 대해서는 케빈 그레이의 논문을 참고하고 있다.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의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 『아세아연구』116호,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2004.

처럼 여기저기 뭉쳐서 몰려 있는” 장면, “광장의 빈터 한쪽에 흰 천막과 갈대를 켜켜로 엮은 지붕과 판자로 엮은 건물” 안의 백인들이 둘러앉아 있는 장면을 투시한다. 바리는 에밀리 부인에게서 서구적 근대의 기원인 영국의 업보, 즉 제국주의적 수탈의 역사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바리는 자신의 연립주택과 거리에서, 그리고 에밀리 부인의 대저택에서 제국주의적 팽창과 소유욕으로 점철된 영국의 과거와 국제 이주자들을 사회의 하부 구조로 배치하며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영국의 현재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 사회의 저층계급으로 귀속된 바리는 차이의 정치학에 결박된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바리는 제 3세계 하위주체들과 에밀리 부인 같은 백인 여성의 고통을 청취하거나 이해하면서 하위주체의 갱신된 지위를 자연스럽게 모색한다. 바리는 소통의 말을 듣고 건네는 여성의 정체성을 영국에서 서서히 형성한다. 그리고 그 형성은 파키스탄계 영국 이주민 후손과의 가족 구성으로까지 확장된다. 바리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관리인인 압둘 할아버지의 손자인 알리의 청혼을 받아들인데, 이 소설의 무슬림들은 동양에서 이주해 온 한 여성을 가족으로 포용하는 관대함을 보여준다. 영국의 주류 백인들이 바리를 매춘녀나 하인으로 취급한다면 이 무슬림들은 바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들과 바리의 관계는 차이의 정치학이 강요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주자들의 연대와 포용이 소통되는 관계이다. ‘정식 여권’과 ‘노동 허가증’이 없는 바리이지만 알리 가족들은 알리와 바리의 결혼을 인정한다. 이로써 바리는 영국에서 가족을 구성하며 동시에 서구가 배제한 타자들과 소통하는 하위주체로 존재하게 된다.

바리와 무슬림의 결혼은 국제 이주의 역사가 풍부한 영국에서 가능한 혼종적인 문화적 교류로, 이들의 결혼은 무슬림의 풍속으

로 진행된다.¹⁴⁾ 이 결혼 장면에서의 바리는 이주 여성들에게 가중되는 차별과 억압을 잠시 잊고 오랜만에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녀는 “여권을 얻게 되면 정식으로 결혼 신고를 할 수 있고, 노동허가증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아”나가겠다고 결심한다. 이러한 장면에서의 바리는 운명이 결정된 저층계급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는 상황적 조건을 극복하려는 주체적 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리와 알리를 둘러싼 현실은 냉혹하다. 그들의 만남과 결혼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 까닭이다. 바리와 알리의 결혼 이후 소설은 21세기의 분열과 상처를 표상하는 9·11 테러의 발생을 전개시킨다. 그리고 9·11 테러를 계기로 바리는 그 동안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차별과 억압을 경험한다. 바로 서구 기독교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받는 종교적 차별과 억압이다. 9·11 테러 소식을 전해들은 압둘 할아버지는 무슬림의 미래를 염려한다.

바라 이제 세상은 달라질 거다. 그렇지 않아도 무슬림을 보는 눈들이 심상치 않았는데
할아버지, 저긴 미국이고요, 우린 영국시민이고요.
법적으로는 그렇지. 그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의 종교와 생활 방식을 비난하기 시작할거다.(228)

이와 같은 압둘 할아버지의 염려는 사실로 드러난다. 압둘 할아버지의 손자 세대들은 반미 전사가 되어 비밀리에 파키스탄으로 출국하며 알리의 동생 구스만도 이러한 행렬에 동참한다. 이에 동생의 행방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국을 떠난 알리는 불행히도 테러

14) 이들의 결혼은 이슬람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문화적 배제 혹은 차이의 정치학이 작동하지는 않는다. 바리는 이 결혼 과정에서 타자화를 심각하게 겪지는 않는다.

리스트로 오인되어 미군들에 의해 관타나모 기지로 끌려간다. 이처럼 9·11 테러는 바리와 아주 무관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 사건은 바리를 받아들인 한 무슬림 가족들의 해체를 유도하며 바리와 알리와의 긴 이별을 초래한다. 전 지구의 일상을 뒤흔든 이 사건의 여파에서 바리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영국 런던에서의 바리는 전 지구적 현안과 세계적 사건에 연결된 존재로 부상한다.

이처럼 서구적 근대의 기원인 영국으로 이주한 바리는 중국에서의 이주와는 달리 다양한 비서구 타자들과 소통하며 세계의 당대적 사건들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여성으로 변모한다. 영국에서의 바리는 세계적 하위주체¹⁵⁾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다. 비록 영국에서의 바리는 시민권과 노동 허가증이 없는 불법 이주자의 신분이지만 그녀는 제 3세계에서 유입된 민중들과 소통하거나 혼종적인 문화적 교류를 수락하는 세계적 하위주체의 정체성을 구현한다.

이와 같은 이 소설의 구도는 『바리데기』의 특징이다. 『바리데기』의 서사는 상승적으로 경계를 확장하며 바리의 현존성을 세계화한다. 탈북 소녀 바리는 중국과 영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러 인민 바리가 아니라 세계적 하위주체로서의 바리로 변모한다. 영국에서의 바리는 북한인도 중국인도 아니다. 그리고 영국인도 아니다. 비록 그녀는 탈인격적인 방식으로 영국으로 유입되지만 그녀는 이 서구적 근대의 현장에서 타자로 배제된 제 3세계 하위주체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한다. 바리는 서구적 근대의 주변에서 서구적 근대의 기원으로 이주하면서 세계적 하위주체로 존재론적 위상을 갱신한다.

15) 바리는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에서 소통하는 하위주체로 변모한다. 그리고 이는 특정 국민국가 범주의 변모가 아니라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세계적 현안과 쟁점에 연관된 변모를 의미한다. 필자는 세계적 하위주체를 성, 종교, 계급, 문화적 영역에서 이질적인 타자들로 정의된 이들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극해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확보하거나 자신의 삶에 대해 자각하는 존재로 파악한다.

그런데 세계적 하위주체로서의 바리는 신화의 바리데기처럼 모국으로 귀환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귀환이 아니라 현재 영국에서의 삶이다. 그녀는 파키스탄계 영국인의 아내로서 알리의 귀환을 학수고대하며 21세기의 분열과 갈등을 감당하고 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알리의 귀환, 알리와 바리 부부의 평안한 일상을 이야기하지만 그 일상을 순식간에 균열시키는 돌연한 테러 사건을 재현하며 마무리된다. 바로 런던 테러 사건이다.

가던 차들이 멈추었고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었다. 우리도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갔다. 러셀 스퀘어 쪽에서 불길과 연기가 올랐다. 사람들의 뒤를 따라 쫓아가보니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가 폭발되었다. 사람들은 가까운 킹즈 크로스 역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층버스의 윗부분이 날아가버렸고 아래도 반나마 찌그러졌다.(291~292)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갈등의 해결이라는 플롯으로 구조화되지는 않는다. 이 소설의 결말이 이 점을 더 입증하거니와 런던 테러 사건은 다시 한 번 바리의 불안한 세계적 현존성을 확인시킨다. 서구적 근대의 현장을 균열시키는 이 테러는 영국과 서구의 불안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바리의 미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고한다. 소설은 이렇게 런던 테러 장면을 극적으로 묘사하며 마무리되어 간다. 이 런던 테러 현장에서 바리와 알리는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21세기의 갈등과 대립이 폭발한 현장을 뒤로 하며 눈물을 흘린다. 바리는 신화의 바리처럼 사자들을 구원하는 생명수를 소유한 대모신이 아니다. 바리는 런던 테러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수를 전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바리의 눈물은 고통 받는 인류를 위로하는 진심과 연민의 눈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이처럼 바리의 영국 이주는 바리의 지위를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에서 세계적 하위주체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바리는 영

국에서 차이의 정치학에 결박된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의 지위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그녀는 차이의 정치학에 결박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서구가 배제한 타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며 21세기의 분열과 대립을 감당하고 있다. 비록 그 감당이 서구 제국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결말의 바리에게서 독자들은 지옥도 같은 지구 현실에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끼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IV. 결말

한국문학은 어떻게 세계문학일 수 있을까? 필자는 무엇보다도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보고 있다. 국내외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 한국문학 작품을 세계문단의 중심언어로 번역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학 스스로 세계문학적 가능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한국문학은 내용적 차원에서 일국의 논리를 극복하는 경계 확산의 노력과 동시에 세계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전 지구적인 현안과 쟁점을 작품 안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동시에 요청된다.

이런 점에서 국민국가의 경계 확산과 함께 전 지구적인 현안인 이주의 문제와 21세기의 갈등과 대립을 이야기하는 『바리데기』는 세계문학적 가능성의 성취를 모색하는 작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바리데기』는 전체적으로 소설의 밀도가 이완되어 있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소설은 전 세계적 현상인 신자유주의, 탈북, 이주와 인종 차별, 전쟁 등 21세기의 세계적 사건을 소설의 내용으로 수용하는 전 지구적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필자는 이 소설의 서사가 북한과 중국의 비서구 아시아와 영국

의 서구 유럽으로 나누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해 논의의 논점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논점은 서구적 근대의 주변과 국제 이주의 시작이며 두 번째 논점은 서구적 근대의 기원과 세계적 하위주체의 탄생이다.

첫째 논점에서 필자는 탈북 현상과 중국으로의 이주의 성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논점에서 필자는 북한의 기근과 바리 가족의 해체, 바리의 탈북을 세계화의 불균형적 구조가 파생시킨 세계적 사건으로 밝혔다. 바리는 세계화의 불균형적 구조가 초래한 세계화의 희생양이다. 중국은 바리에게 포용과 배제의 모순적 기능이 작동하는 국가로 체험된다. 중국에서 바리는 주변부 하위주체들의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중국 따렌에서 국제 이주를 강요받는다. 즉 바리는 국제 이주가 상징하는 영원한 불확실성의 삶을 강요받는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또 다른 이주를 예고하는 계기였다.

둘째 논점에서 필자는 영국으로의 이주의 성격과 하위주체로서 바리의 정체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논점에서 필자는 바리의 영국 이주가 통제 가능한 상품으로의 이동이며 본질적으로는 비서구 인종과 서구 인종 간의 차이의 정치학이 수반되는 이주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영국에서의 바리가 차이의 정치학에 결박되어 목소리 없는 하위주체의 지위만을 반복하지는 않는다. 서구적 근대의 기원인 영국으로 이주한 바리는 서구가 배제한 타자들을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또한 영국에서의 바리는 예측 불허의 세계적인 사건과 전 지구적 현안에 연루된 존재로 변모한다. 바리는 영국에서 세계적 하위주체로 성장한다.

『바리데기』는 비록 한국어로 서술된 소설이지만 그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바리데기』는 일국의 논리에 호응하는 한국소설의 근대적 성격을 탈피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바리

데기』의 성격을 탈근대적 소설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바리데기』는 한국소설의 근대적 성격을 탈피하지만 그 탈피는 전 지구적 차원의 근대를 포섭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바리데기』는 세계적 근대소설이다. 『바리데기』는 번역 이전에 세계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내적인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작품의 하나이다. 이는 소재적 차원의 근거가 아니다. 『바리데기』는 주제적 차원에서 세계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독해될 수 있다.

주제어 : 이주, 하위주체, 서구적 근대, 주변, 기원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2. 논문

심진경, 「한국문학은 살아 있다: 소설가 황석영과의 대화」, 『창작과비평』, 2007년 가을호.

임홍배, 「괴테의 세계문학론과 서구적 근대의 모험」, 『창작과비평』, 2000, 봄.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한기욱, 「지구화시대의 세계문학」, 『창작과비평』, 1999, 가을호.

황석영, 「황석영이 황석영을 말한다」 『작가세계』 2004년 봄호.

3. 번역 논문 및 저서

다카하시 오시오, 「세계문학으로서의 아시아문학」, 『아시아』, 2007 가을호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의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
『아세아연구』116호,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2004.

The Prospect and Phase of Korean Literature
- Based on 『Baridegi』 by Seok Young Hwang-

Yang, Jin-O

This thesis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Korean literature as global literature. The subject of the study is 『Baridegi』, the new novel written by Seok Young Hwang. I believe it is more important for Korean literature to gain the global recognition by itself than to introduce translated versions to global readers. 『Baridegi』 is the piece of work that coincides with my opinion. 『Baridegi』 is the novel that tells about global issues such as immigration, conflict and breakup of the 21st century. Although 『Baridegi』 is written in Korean, the field of its vision is not limited in Korea. The focus of the novel shifts from North Korea, the country that has stayed out of westernization, to Europe, the central region of western modernization. Thus 『Baridegi』 achieves the possibility of global literature by describing feminization and gender specialization of immigration, cooperation and tolerance of low classes, and difference of politics. Therefore I comprehend 『Baridegi』 as an example that shows the possibility of the prospect and phase of Korean literature as global literature.

Key words : immigration, subaltern, western modern, margin, origin

양진오

대구대학교

주소: 706-7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천마타운아파트 231동 605호

전화번호: 016-242-7592

전자우편: tell65@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